# 성공적인 기회, 유리한 투자환경

## ◆ 투자환경, 개발계획과 관련한 투자설명회 진행 ◆

지난 5월 12일 평양의 고려호텔에서 공화국의 투자환경과 개발계획과 관련한 투자설명회가 진행되였다. 투자설명회에는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전람회대표단성원들과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투자설명회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안내》라는 제목의 다매체편집물이 방영되였다.

이어 연단에 나온 김명룡 합영투자위원회 과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정책과 투자환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공화국은 가까운 몇해안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알곡생산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으며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켜세우면서 현대적기술로 갱신하기 위한 목표밑에 다른 나라들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우리는 주요린방인 로씨야기업들과의 철도운수부문협조사업,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중국과 공동개발, 공동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것과 함께 각 도들에서 자체의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꾸려 여기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특히 관광업발전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마식령스키장을 포함한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현대적인 관광지구로 꾸리는데 필요한 투자도 환영하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모략선전과 고립압살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지만 고도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정치적환경이 마련되여있다.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있으며 가장 우월한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국가에 의한 주택 및 직업보장, 사회보장제와 같은 혜택속에 누구나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종족, 신앙, 당파, 지역 및 계급간 대립과 모순이 없고 실업과 파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공화국령역에 투자하는것을 환영하며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하고있으며 투

김명룡 합영투자위원회 과장

자가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보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여러 투자관련법규에 법화하였다.

우리 나라는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발표한데 이어 1990년대에 외국투자와 관련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가법, 합작법을 비롯한 수십여개의 외국투자관계법규를 새로 제정, 수정, 보충하여 외국인들의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기본적으로 마련하였다.

최근 공화국정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관계법의 수정 및 보충사업을 통하여 투자절차 간소화, 편의보장 등 나라의 법률적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우리 나라는 전력, 금속, 석탄, 채취, 기계, 전자, 선박건조, 건재 등 중공업과 식료가공, 방직, 피복, 신발 등 경공업 그리고 농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이 조화롭게 발전된 다방면적인 경제토대와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투자가들이 자기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투자대상을 선택할수 있는 폭넓은 기회와 가능성을 가질수 있다.

전국적 및 국제적범위에서 철도, 도로, 해상 및 항공수송망들이 운영되고있고 전화망의 빛섬유케블화와 국가 및 기업관리의 콤퓨터화, 3세대 이동통신을 실현하였으며 전력공급망과 상하수도망도 비교적 완비되여있다.

우리 나라에는 경제발전의 밑천으로 되는 200여종의 유용한 금속 및 비금속광물들이 매장되여있으며 특히 흑연과 마그네사이트, 희토류금속매장량은 세계적수준에 이르고있다. 또한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제와 300여개의 각종 대학 및 전문학교들에서 교육받은 준비된 로동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령토 및 인구대국들과 린접하고있는 지정학적유리성도 가지고있다. 특히 청진항, 라진항을 비롯한 동해항구들은 중국동북지역과 몽골, 로씨야의 화물수송수요를 보장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어 국제시장을 통한 원자재공급과 제품판매에 유리하다.

공화국정부는 외국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여러가지 특혜와 우대조치를 취하고있으며 그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있다.

투자를 받아들이는데서 외국투자가의 국적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으며 투자가의 출자비률은 합영 또는 합작쌍방이 합의하여 정하고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 거래세 혹은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와 자동차리용세 등 몇가지에 불과하며 자본세, 등록세, 원천세 등 다른 나라들에 보편적인 많은 세금들이 우리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률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실례로 기업소득세는 25%이다. 장려대상으로 규정된 기업인 경우 기업소득세률은 25%로부터 10%로 낮추어 적용되여 리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100% 면제 그후 2년간 50% 반환해준다.

하부구조건설투자대상들에는 추가적인 면세특혜가 적용되는데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100%, 기타 부문은 50% 반환해준다. 자원세는 자원을 채취하여 가공함이 없이 그대로 수출하는 기업들에만 적용되며 자동차리용세와 도시경영세는 보잘것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자기의 영업범위내에서 수출입권한을 가지게 되며 장려부문에 투자한 기업은 전력 및 용수 사용료를 우대적인 낮은 료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영외환업무은행이나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둘수 있으며 합법적인 소득을 세금없이 해외에 송금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주요투자대상들을 소개한다면 사동지구의 1 000정보 온실건설대상, 린비료광산 현대화 및 린비료생산대상, 맛내기생산대상, 선박건조 및 수리업봉사대상, 초무연탄의 종합적리용대상, 탄광현대화 및 무연탄생산대상, 어구자재 및 수산물생산대상, 각종 농기계생산, 감자전분생산대상, 마감건재생산대상 등이며 자연에네르기리용과 하부구조건설대상들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받아들이고있다.

그러면서 그는 합영투자위원회가 국내외합영투자사업 전반을 맡아보는 정부기관으로서 공화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투자가들에게 성공적인 투자기회를 마련해주어 훌륭한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리성혁 합영투자위원회 부국장이 투자가들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원산-금강산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원산-금강산지구는 크게 원산지구와 통천지구, 금강산지구로 나누어져있다고 하면서 이 지구에는 142개의 력사유적과 11개의 백사장, 7개의 해수욕장과 9개의 자연호수, 676개의 관광명소, 4개의 광천자원과 328만여t의 감탕자원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원산-금강산지구개발의 중심지역으로 되여있는 원산시는 강원도의 소재지이며 항구문화도시로서 경치가 아름답고 기온이 따뜻하다. 원산시는 로씨야와 중국, 일본 등 린접나라들에서 비행기로 1~2시간내에 도착할수 있으며 평양에서 원산까지 관광도로가 있고 함흥에서 원산까지 고속도로가 건설되여있다.

원산시에는 송도원해수욕장과 명사십리해수욕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조선식공원, 동물원, 식물원 등 관광문화휴식터와 갈마호텔, 새날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져있다.

원산시의 서북쪽에 위치한 마식령산줄기에는 10여개의 스키주로와 야외스케트장과 같은 관광시설들과 국제경기도 할수 있는 스키장지구, 아담하면서도 산골맛이 나는 마식령호텔이 있으며 울림명승구역에는 울림폭포와 구슬폭포, 비단폭포, 담소들로 이루어진 관광명소들이 있다.

원산시에서 남쪽으로 5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는 통천지구에는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다와 관동8경의 하나로 불리우는 총석정과 동정호, 시중호와 같은 자연호수들이 있어 관광에 유리하다.

그는 금강산 역시 기묘함과 웅장함,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명산으로서 이 지구의 개발에 여러 나라 투자가들이 관심을 돌리고있다고 하면서 원산-금강산지구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련결하는 국제관광로정들을 형성하고 원산시중심부에 숙박 및 봉사시설들을 새로 건설하며 국제박람회장구역과 체육 및 상업구역 등 관광시설들을 꾸리는 방향에서 원산-금강산지구총계획이 작성되였다.

원산시의 도시중심축을 새롭게 형성하고 주변에 상업봉사구역과 문화휴식구역, 과학기술교류구역을 배치하고 수영관, 수족관, 곱등어교예장, 건강중심, 문화오락휴식장 등 관광시설들을 해안가를 따라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송도원해수욕장에 1만 2천여명을 동시에 수용할수 있는 봉사시설을 더 증설하는것을 예견하고있다.

그리고 갈마반도의 명사십리에 10만명수용능력의 해수욕장과 유희장, 자연공원, 물놀이장을 건설하고 년간 25만명능력의 려객부두와 정박장을 건설할것을 예견하며 석왕사지구와 통천지구에 등산길을 새로 개척하고 총석정에 해수욕장, 배놀이장 등 관광보장시설을 건설할것을 예견하고있다.

금강산지구개발계획도 관광시설을 더 늘이고 숙박능력을 확장하는 방향에서 작성되였다.

하부구조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그는 원산비행장은 하루 수천명능력으로 새로 건설하며 원산-금강산관광도로와 병행하여 새로운 고속관광철길을 건설하는것을 예견하고있다고 하면서 원산시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백두산, 금강산, 칠보산관광지구들과 함께 고유한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있는 유명한 관광지로서 조선동해의 진주라고 불리우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원산-금강산지구개발은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에서 해안관광개발을 실현하는 훌륭한 본보기로 될것이며 이 개발에 참가하는 세계 여러 나라 투자가들에게 만족할만 한 경제적리득을 가져다주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투자설명회는 여러 나라의 기업관계자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설명회가 끝나자 중국 료녕성에서 온 기업가 리남은 《좋은 설명을 들었다.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뛰여나게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가지고있는 조선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관광자원이 참으로 많다. 해마다 여러 기업가들을 데리고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해왔는데 원산-금강산관광지구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채하 산동성오정집단유한공사의 리사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막강한 경제토대, 무진장한 자원부원을 가지고있는 조선이야말로 리상적인 투자환경이 마련된 곳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면서 농기계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조선과 경제적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의향을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 확대되는 경제무역관계

##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진행-

지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는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전람회가 진행된 기간 전시장으로는 매일같이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과 경제무역관계자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국제상품전람회에는 중국, 뉴질랜드, 도이칠란드, 말레이시아, 몽골, 스위스,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이딸리아, 인도네시아, 웰남, 타이, 꾸바, 뽈스까, 중국대북의 310여개회사와 주조대사관들이 참가하였다.

박웅식 조선국제전람사 사장의 말에 의하면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는 여러 나라 회사들과 기업관계자들의 수가 해마다 늘고있다고 한다.

이번 전람회의 경우에도 참가한 회사들의 수가 예상외로 늘어나는 바람에 3대혁명전시관의 새기술혁신관과 중공업관의 두 건물을 통채로 내여 전시장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지역의 기업체들과 무역회사들에서 출품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전자, 기계, 건재, 운수, 경공업 및 식료일용제품들이 전시된것만 놓고보아도 이번 전람회의 높은 수준을 가늠할수 있는것이다.

전람회기간 공화국과 여러 나라 회사들사이의 경제무역거래와 과학기술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전람회장에 설치된 전시장들과 면담실은 출품한 제품들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들과 무엇인가 진지하게 의견교환을 하는 사람들, 무역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관계자들로 붐비였다.

이것은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열의에 의하여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국제적인 경제적회합으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굴착기와 대형자동차를 비롯한 중형기계생산에서 자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중국의 서공집단유한공사에서 온 한 기업가는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열리기 시작한 때부터 해마다 참가하고있는데 그때마다 빠르게 발전하는 조선의 경제발전속도에 감탄하고있다, 중형기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이며 열정적인 조선사람들과 기업거래를 가지고있는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말하였다.

리조강 청도아우크마수출입주식유한공사 경리도 전람회에 참가하여 조선의 과학기술수준이 상당히 높다는것을 느꼈다고, 이번 전람회기간에 조선의 여러 회사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과 련계를 가질것을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이들만의 심정이 아니였다. 어느 한 나라의 회사가 전람회장건물에 큼직하게 걸어놓은 《친구따라 만리간다》는 글발을 통해서도 어떤 정세변화에도 조선과의 경제무역거래를 확대해나갈 외국의 벗들의 의지를 느낄수 있었다.

내외의 기대와 큰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된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는 공화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와 교류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 세계수학계의 관심을 끈 첨단연구성과들

## ❖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에서 ❖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의 교원학자들이 금융수학과 미분방정식분야의 미해명문제들을 밝히고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함으로써 나라의 수학발전수준을 세계에 과시하였다.

박사, 부교수 오형철, 강좌장 김상문을 비롯한 교원학자들은 《금융정보화를 위한 수학적기초연구》, 《카오스와 분수계미분방정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국제금융계에서 첨단열점문제의 하나인 신용위험의 수학모형화문제와 그 기초에 놓이는 불련속자료를 가지는 블랙-솔즈편미분방정식의 성질, 금융시계렬분석, 공학실천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변곁수분수계미분방정식리론 등 금융수학과 미분방정식분야의 가치있는 학술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연구집단에서는 이러한 성과들을 반영한 28건의 론문을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과 나라들의 권위있는 수학잡지들에 발표하였다. 론문들이 발표되자마자 세계수학계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 분야를 한계단 끌어올린 론문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이 이룩한 최첨단연구성과들은 련쇄적인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후과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수학적수단들을 제공하는것으로 하여 현재 다른 나라들에서 널리 응용되고있으며 기술공학적인 실천문제들을 푸는데도 적용되여 은을 내고있다고 한다.

국제학술잡지들에 발표된 론문들중에는 그 리론의 심오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세계과학기술망에서 10대최우수론문으로 여러차례 선정된 론문도 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건설해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세계적인 연구성과들을 이룩한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의 교원학자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더욱 분발하고있다.

본사기자

## 력사일화

# 현부인과 대추나무

옛날 한 마을에 마음이 아주 곧은 선비부부가 살고있었다. 선비의 안해는 가난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글을 읽어 큰뜻을 이루려는 남편에게 말없이 정성을 다하였다.

어느날 안해는 먹을것을 구하러 밖에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그런데 그가 집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면서 자기 집쪽으로 뻗은 이웃집의 대추나무가지에서 대추 몇알이 떨어졌다. 안해는 남편을 생각하여 대추를 주어가지고 그에게 권하였다.

대추를 받은 선비는 기쁜 마음으로 어찌된 대추인가고 묻기에 안해는 생각없이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선비는 안해를 준렬히 꾸짖었다.

《어찌 떨어진 물건이라 해도 제 주인이 있을텐데 남의 눈을 속여 내 배를 채울수 있으리오. 더구나 한이웃에서 서로 믿고 사는 처지에 어찌 마음을 가리우고 살겠소. 그대가 나하고 사는지 수십년에 이제껏 남편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참으로 한스럽기 그지없소. 그대는 나와 배필이 안되니 물러감이 마땅하리오.》

안해는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남편은 이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웃집에서 이 사연을 알고 도끼로 대추나무를 쾅쾅 찍고있었다. 선비가 그 소리를 듣고 어찌된 영문인가고 묻자 옆집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 대추나무가 아니였던들 어찌 댁의 현부인이 나가게 되리오. 내 대추나무를 없애는것이 지당하리오.》라고 하면서 도끼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선비는 《내 안해를 불러들일테니 대추나무를 찍지 마시오.》라고 해서야 옆집주인은 도끼질을 멈추었다. 그리하여 대추나무도 살고 선비의 안해도 되돌아와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았다고 한다.

본사기자

# 파가 인체에 주는 영향

파는 인체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

파에는 단백질, 지방, 당류, 비타민, 칼시움, 마그네시움, 철 등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을뿐아니라 휘발성기름도 함유되여있다.

휘발성기름에는 식물살균제라고 부르는 성분이 들어있어 적리균과 피부진균에 대한 억제작용을 한다.

파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생기는 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

또한 파는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위를 튼튼하게 해준다.

예로부터 《파를 된장에 찍어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난다.》고 일러왔듯이 파는 인체의 소화기능을 높이고 사람의 위장에 쌓여있던 나쁜 물질들을 제거해준다.

병이 없는 사람도 파를 많이 먹으면 겨울과 봄에 호흡기감염을 예방하고 체질을 튼튼하게 할수 있다.

본사기자

# 주사를 맞을 때

주사를 맞을 때 너무 긴장하면 근육이 굳어지면서 주사바늘이 휘여드는가 하면 심하면 바늘이 빠져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고통스러운것은 물론 약물을 흡수하는데도 좋지 못하다.

주사를 맞을 때에는 기분을 느긋히 가지고 발끝을 움직이든가 혹은 속으로 수자를 세여보면서 주의력을 분산시키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